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 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그림들을 봐 주십시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듣고) 잘 모르시는군요. 이 그림들은 인공 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반응을 본 후) 놀란 분들이 많군요. 이처럼 인공 지능은 최근 예술 작품 창작까지 그 영역을 넓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 지능은 스스로 빅 데이터에서 수많은 패턴을 발견하여 정보를 해석, 추론하며 학습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B] 인공 지능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곡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인공 지능이 창작한 소설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작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정이 미흡하고 사건 전개는 개연성이 떨어지며,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년 이내에 인공 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C] 그런데 최근 인공 지능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 일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 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위해 인간의 창작물을 복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공 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있다는 주장과, 직접 이를 창작한 인공 지능에게 있다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 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놓고 인간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 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예술 작품 창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를 마무리할 때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그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③ 용어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질문을 들은 청중의 대답을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을 점검하여 수정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각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 창작은 독창성을 중요시한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은 대상을 복제,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이 아니지 않을까?
- 학생 2 : 얼마 전 인공 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 학생 3 : 인공 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논란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 귀속 여부, 거짓 저작권 주장에 관한 것이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아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요약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생각하며 들었다.

3. <보기>는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를 [A]~[C]에 활용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인공 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해 결과물을 창조해 낸다. - 과학 신문 -

<자료 2> 소설을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창조해 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작가 인터뷰 -

<자료 3> 현행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창작적 행위만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공 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저작권 연구 보고서 -

- ① [A] : 인공 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B] : 인공 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 데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B] : 인공 지능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C] : 저작물 이용 목적에 비추어 인간이 거짓으로 저작권을 내세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C] :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이 작업한 결과이므로 창작에 관여한 인간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였다.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ㄹ’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화]’, ‘좋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꺾]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짜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 : 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짚넬[짚넴]도 강하다.
 - 춤을 ㉡ 끝잘[곧잘] 춘다.
 - 책상에 ㉢ 높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답기[담 : 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긴] 모양이다.

- ①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와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가꿈, 어찌
2.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닥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꿈’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닥’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닥]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알고 있으면서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비도덕적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현대 심리학 이론들이 있다. 자기 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사고, 감정, 욕구, 행동 등을 바꾸려는 시도인데,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자기 조절의 성공을, 반대의 경우는 자기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엘버트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과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이 있다.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밴두라에 따르면, 자기 조절은 세 가지의 하위 기능인 자기 검열,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자기 검열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로,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판단은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기준인 개인적 표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행동 이후 느끼게 될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 반응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은 만족감이나 긍지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 내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만들어 낸다.

한편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힘 이론은, 사회 인지 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 자연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개인적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자기 조절에 들이는 에너지로 구성된다. 바우마이스터는 그중 에너지의 양이 목표 성취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조절에서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다양한 자기 조절 과업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양은 제한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기 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긴박한 욕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에너지의 일부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도덕교육에서, 밴두라와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조절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밴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정당화나 책임 전가 등과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판단을 할 때 자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교육 등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보편적인 도덕규범인 도덕적 표준을 어겼을 경우 느끼게 될 죄책감을 예측한다면 인간은 자기 조절을 하여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조절의 성공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기 판단 과정에서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죄책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도덕적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자기 조절의 실패에

해당한다. 이에 밴두라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자기 효능감의 신장을 강조한다.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 조절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신장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조절 과업들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과업에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된 상태, 즉 자아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직후의 자기 조절 과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바우마이스터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위해 ㉡자기 조절의 자동화를 강조한다. 자기 조절의 자동화는 자기 조절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한 자기 조절의 자동화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도덕적 행동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9.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특정 개념을 다루고 있는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특정 개념을 바탕으로 두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고 있다.
- ③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이론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보여주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0. 윗글의 자기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조절에서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 ② 밴두라는 자기 조절 능력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 ③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조절의 성공을 의미한다.
- ④ 밴두라는 자기 조절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밴두라는 자기 조절의 성공이라고 본다.

11.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개인적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자연과학적 근거를 통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⑤ 구체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정한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P 씨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우선 그는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점심 시간이 2시간인 자신의 근무 환경을, 그리고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하였다. 그래서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30분씩 충실하게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 달 후 P 씨는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해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는 못했다.

- ① P 씨가 느낀 만족감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이다.
- ② P 씨가 놓여 있는 근무 환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검열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적 요소이다.
- ③ P 씨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정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것은 자기 판단에 해당한다.
- ④ P 씨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자기 반응이다.
- ⑤ P 씨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13. 윗글의 학자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갑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규범을 배웠고 이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인류 전체에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 자신의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라고 갑에게 지시했다. 갑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우주선을 만들었다.
- 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왔기에,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실수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상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동료에게 을은 급히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① 밴두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상사의 지시는 갑의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겠군.
- ② 밴두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은 갑이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도덕적 표준에 해당하겠군.
- ③ 바우마이스터: 을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 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모했으므로 을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겠군.
- ④ 바우마이스터: 을은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 놓는 행동에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동료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겠군.
- ⑤ 바우마이스터: 을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그 무남독녀는 용모와 재주가 겸해 뛰어나고 시서(詩書)에 능통하였다. 양왕이 공주를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봉래산(蓬萊山)의 설중매(雪中梅)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에 오얏(李)나무를 접하면, 지엽(枝葉)이 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에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향(梅香)이라 하고 자를 봉래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신을 한번 보고 대헌 군자(大賢君子)인 줄 알고 구혼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을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혼하려고 하였으나, 매향 공주가 말하기를,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녀불경이부(列女不更二夫)라 하나이다.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他門)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 슬하에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내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이 아버지의 박복한 탓이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水火)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번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이제 이랑의 벼슬이 초공에 이르고 위왕이 특출하니, 매향은 그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까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쨌소?”

“그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次妃) 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일이오?”

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저로서 약속을 어김은 날 둘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누이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貴家)의 소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황제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선의 일은 짐이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天定)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혼함이 어떤가?”

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성교(聖敎) 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황제가 매향 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경녀(卿女)의 절행(節行)이 죽히 고인에 못지 않으니 기특하다. 이제 이선의 벼슬이 죽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은하였으나, 위왕은 옆드려서 아뢰되,

“양왕의 공주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라 선의 차위(次位)에 굴(屈)함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違越)하오리까?”

“집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부인 숙향이,

“황상께서 명초(命招)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감이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공(公)이 비록 나를 위하여 주니 감사하오나, 신자(臣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② “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辭婚)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면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國戚)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家中)을 탁란(濁亂)시키면 우리 가문의 청덕(淸德)이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갈지 못하오.”

“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하나는 군명(君命)을 거역함이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 년을 독수공방 하오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임꺽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 병으로 어명(御命)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앙심을 품게 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14.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매향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 ② 황제는 두 집안의 갈등을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주었다.
- ③ 양왕은 위왕의 간계로 혼약이 깨진 것으로 오해하였다.
- ④ 위왕은 혼사에서 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숙향은 이선이 혼사 문제로 원한을 사게 될까 염려하였다.

15. <보기>의 ‘양소유’ 입장에서 위 글의 ‘이선’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아뢰니다. …… 소신(小臣)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채하였는데 천만 뜻밖에 부마로 봉코자 하시어 황태후의 명으로 이미 받은 납채를 내어주라 하시니, 이는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인륜을 살피어 정가와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크게 화를 내어 ‘양 상서를 감옥에 가두라.’ 하자, 조정 백관이 다 다투어 간(諫)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 김만중, 「구운몽」 -

- ① 황실의 부마가 되는 길을 마다한 것은 좋지만, 거절의 사유는 매우 불순해 보인다.
- ② 비록 황제의 명일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서는 안 된다.
- ③ 부인을 들쭉이나 두는 일이 불가한데도 내심 그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④ 집안의 일을 중히 여기고 나라의 일을 가볍게 보았으니, 이는 불충(不忠)이 아닐 수 없다.
- ⑤ 벌을 받게 될지라도 자기 뜻을 당당히 밝혀야지, 병을 핑계로 모면하려 한 것은 비겁한 처사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자 한다.
- ② 칭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알리려 한다.

17. 위 글 이후의 사건을 <보기>와 같이 예상해 보았다. 그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은?

— < 보 기 —

양왕의 주장으로 이선이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어 집을 떠난다. 이선은 위기에 처하지만 선계(仙界)의 도움으로 벗어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돌아온 뒤 이선은 양왕과 화해하고,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후 매향은 숙향과 의종계 지내며, 이선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 여럿을 두고 다복하게 일생을 보낸다.

- ① 양왕의 태몽에 선관이 나타나 매향의 훗날을 예언하였다.
- ② 매향은 이선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 ③ 매향은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 ④ 위왕은 혼약을 어긴 것에 대해 양왕에게 사과하였다.
- ⑤ 양왕은 매향의 일로 이선에게 앙심을 품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
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용운, 「수(繡)의 비밀」 -
*심: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절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절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D]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D]

- 문정희, 「절레」 -

18.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19.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으므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 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0.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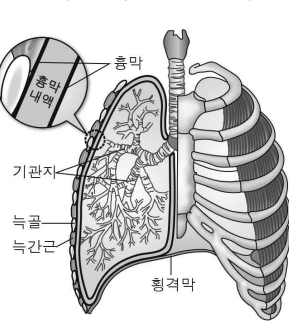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흡기,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을 호기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포로 들어간다.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한 상태가 되며,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공기주머니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 또한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흉막과 흉막 사이는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막 내액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물에 의해 붙어 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포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한다.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다.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의 이동이 없다.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차 있으므로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도 함께 작용한다.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폐의 부피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림]

흉막 내압은 흉막강 속 흉막 내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흉곽벽의 탄성 반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 결과 폐와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진 상태가 되어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기는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져 폐는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포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공기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흉막 내압,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 폐의 부피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공기는 폐포로부터 기도를 거쳐 대기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 아대기압: 대기압 아래의 기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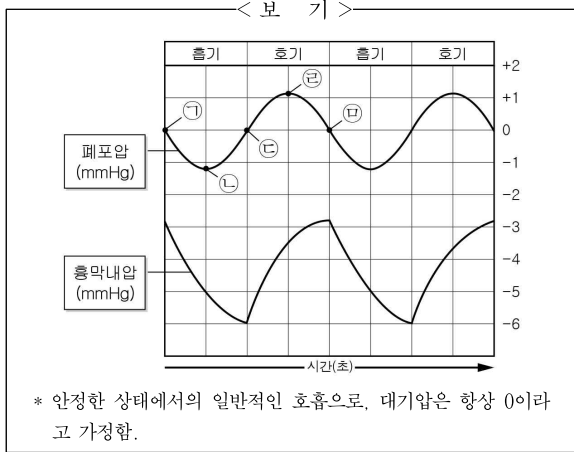
21. 윗글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호흡 과정에서 폐의 부피 변화는 어떠한가?
- ② 호흡의 정의와 호흡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③ 호흡 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의 원리는 무엇인가?
- ④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가?
- ⑤ 호흡과 관련된 압력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22. **폐**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폐는 두 개의 흉막 중 안쪽 흉막과 붙어 있다.
- ② 폐는 흉곽 내에 위치하며 흉막강에 둘러싸여 있다.
- ③ 폐포에서 교환된 이산화 탄소는 기관지를 거쳐 이동한다.
- ④ 폐는 뼈와 늑간근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된다.
- ⑤ 폐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체외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진다.

※ <보기>는 흡기와 호기에서의 폐포압과 흉막 내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뒷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4번과 35번 물음에 답하시오.



23. ㉑ ~ 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은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으로, ㉒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② ㉒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으로, ㉓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다.
- ③ ㉓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으로, ㉔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④ ㉔은 흉곽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으로, ㉕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⑤ ㉕은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으로, ㉓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폐의 부피는 큰 지점이다.

24. ㉒에서 ㉓로 호흡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횡격막은 이완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위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② 횡격막은 이완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③ 횡격막은 수축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 ④ 횡격막은 수축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⑤ 횡격막은 수축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25.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㉑, ㉒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례]
A 씨는 외상으로 인해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흉막 내압이 변화하다가, 현재는 외부에서 흉막강으로의 공기 이동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치료가 필요하다.
* 단, 폐의 손상 없이 흉곽벽이 찢린 경우로 한정함.

[학생의 반응]
현재 A 씨는 흉막 내압이 (㉑) 과 같아졌고 폐는 외상이 생기기 전보다 쪼그라들었겠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 난 부위를 막고 흉막강 속 공기를 제거하여 (㉒) 을 증가시키면 될 것 같아.

- | | | |
|---|-------|------|
| | ㉑ | ㉒ |
| ① | 대기압 | 경폐압 |
| ② | 대기압 | 아대기압 |
| ③ | 탄성 반동 | 아대기압 |
| ④ | 탄성 반동 | 경폐압 |
| ⑤ | 경폐압 | 대기압 |

※ 확인 사항
◦ 제한시간 35분